

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변동요인이 주는 시사

-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코스트의 차이에 의한 공정간 분업을 수반하는 수직분업형 직접투자와 무역코스트 절감을 목적으로 한 수평분업형 직접투자로 분류
-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 현지 산업기술 축적으로 직접투자비용이 저하됨에 따라 수평분업형 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
- 그러나 환율 하락에 따른 무역코스트 저하와 해외수요 확대로 국내투자가 증가하더라도, 수평분업형 직접투자의 유출로 국내투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

□ 수직분업형 직접투자와 현지생산 비용

- 수직분업형 직접투자라 함은 생산코스트의 차이를 이용한 공정간 분업을 수반하는 직접투자를 말함
- 수직분업의 장점은 생산비용 절감에 있는 반면, 단점으로는 생산 공정을 분할함으로써 무역코스트가 발생하고 생산 공정간 통합에 따른 경제 상실 등임

□ 수평분업형 직접투자와 무역 비용

- 수평분업형 직접투자라 함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현지생산을 하기 위한 직접투자를 말함
- 수평분업의 단점은 수송비용, 무역장벽 등의 무역코스트 절감에 있는 반면, 단점은 생산 활동이 분산됨에 따라 공장건설 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임

□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 관계

- 해외수요의 확대 영향
 - 수출 또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의 현지수요가 확대되는 경우, 당해 기업은 현지 생산 확대에 대응하든가 아니면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수출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

- 그러나, 직접투자 확대로 현지에서 산업·기술 축적이 이루어져 직접투자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, 무역코스트가 저하되더라도 현지수요 증가에 대하여 수출보다는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음

○ 환율변동의 영향

- 예를 들어 엔고는 생산비용 등 직접투자 비용을 저하시켜 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반대로 엔저가 되는 경우 직접투자비용은 상승하지만, 무역코스트는 저하되기 때문에 직접투자 대신 수출확대로 대응
-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접투자 확대로 현지에서 산업·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직접투자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, 무역코스트가 저하되더라도 현지수요 증가에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음

□ 일본의 사례

- 해외직접투자가 일본기업의 투자총액(해외직접투자+ 국내민간기업 설비투자)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상승
 - 그 요인의 하나로 급격한 엔고를 들 수 있는데, 엔고 국면에서는 직접투자 비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해외생산의 우위성이 높아짐
- 그러나 환율요인에 의한 단기적인 변동보다도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, 일본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임
 - 2000년 전반 엔고 국면에서는 약 7%에 불과했던 이 비율이 약 14%로 상승
 - 금액으로도 일본국내 민간기업 설비투자가 2002년 64.5조 엔에서 2012년 62.7조 엔으로 1.8조 엔 감소한데 비하여, 해외직접투자는 동 기간 중 4조 엔에서 9.8조 엔으로 5.8조 엔 증가
 - 특히, 아시아지역에서는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율이(현지법인의 현지매출액/수출+ 현지법인의 현지매출액)급격히 상승
 - 이는 현지수요에 수출이 아닌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
 - 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의 사업 활동은 선진국과 달리 수직적 분업의 성격이 강함
 - 그러나 아시아지역에 일본의 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·기술이 축적된 결과,

무역코스트가 저하되더라도 현지수요 확대에 수출보다는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편이 코스트 면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커짐

- 또한, 최종재의 가공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상류공정 뿐만 아니라, 중간재 등 비교적 하류공정에 있어서도 현지생산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
- 일본의 무역특화지수에서 경쟁력추이를 보면 최종재만이 아니고,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강했던 중간재도 일본의 비교우위가 상실, 중국과 아세안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
- 한편, 북미지역에서는 이제까지 무역코스트 요인에 의한 수평분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, 현지생산의 진전과 부품 등 서플라이어의 현지진출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축적으로 규모의 경제상실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될 가능성이 커짐
- 이에 따라 수송기계 등 무역코스트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평분업이 앞으로도 진전되어 수출을 대체하는 형태로 현지생산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

□ 시사점

- 일본은 수평분업형 대선진국 투자와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의 쌍방형 대아시아 투자에 의해 해외직접투자/국내투자비율을 높여왔음을 시사
 - 지금까지는 갱신투자 정도로 부진했던 일본국내 설비투자가 엔저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
 - 실례로 엔저와 해외경기 회복으로 2002년부터 2008년 전반에 걸쳐, 설비투자가 확대되어,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호황을 누린 「이자나기 경기」(2002년 9월~2009년 3월)가 있었음
- 그러나 엔저와 해외경기 회복이 국내생산과 설비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긴 하나, 과거와 달리 수평분업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, 해외직접투자비율 상승을 통해 국내설비투자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음
-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해외직접투자의 역사가 짧고 규모도 적지만,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수직분업형,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수평분업이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큰 차이는 없음
 - 우리나라의 경우, 환율하락과(원저) 해외경기 회복에 더하여, FTA체결 등은 무역코스트를 저하시켜 줌으로써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- 그러나,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경우처럼 앞으로 수평분업형 해외 직접투자의 비율 상승→ 해외직접투자/국내투자 비율 상승으로 국내투자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단기적인 환율 요인이나 해외경기 요인에 의해 국내투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

<참고자료>

大和総研, 『日本経済・社会構造分析レポート: 日本は投資過小, 中国は投資過剰』の落とし穴』 2013.10.16